



칼빈의 설교

칼빈은 신학자 이전에 설교를 중시하는 목회자였다. 그는 주일에는 신약, 평일에는 구약과 시편을 설교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신구약 설교를 유동성 있게 조절하였다. 칼빈은 신약 가운데 사도행전, 목회서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순으로 하였으며,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1560-61년 동안 설교하였다. 칼빈은 구약 가운데 요나, 다니엘, 에스겔, 욥, 신명기, 미가 순으로 하였고, 때로는 몸이 병약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설교를 마무리 짓곤 하였다.

칼빈의 설교 스타일

칼빈의 설교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순차설교(*Lectio continuo*)이다. 이는 오늘 날의 강해 설교에 가까우며,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하는 설교이다. 둘째는, 특별설교이다. 오늘 날의 주제 설교에 가까우며, 이러한 특별설교는 아주 가끔 행하였다.

칼빈은 순차설교를 주로 하였기에 성경의 권별로 설교하였다. 칼빈은 각 권의 설교를 매우 천천히 행하였으며, 거의 한절씩 설교하길 원했다. 그의 설교 횟수는 다음과 같다: 신명기 200회, 이사야 343회, 욥기 150회, 목회서신 103회, 고린도전서 110회, 고린도후서 65회.

칼빈 설교문과 관련된 일화

칼빈 설교문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다. 1805년 제네바 도서관에는 칼

빈의 설교문 44권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 새로운 책들을 꽂을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 때 도서관 사서는 생각하기를, “이미 칼빈의 주석은 다 출판 되었고 도서관에 다 소장되어 있는데, 굳이 설교문까지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여, 경약스럽게도 저울에 종이 무게를 달아 그 종이 가격에 칼빈의 설교문을 팔아버렸다. 그 후에 1823년, 두 명의 신학생들이 제네바 시내의 길거리 잡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그것을 포장해준 종이를 자세히 살펴 보니 바로 칼빈의 자필 설교문이었다. 그들은 곧장 돌아가서 나머지 종이들을 구입하였고, 그리하여 4,000개의 설교 중 2,203개가 겨우 보존 되게 되었다. 이것은 칼빈의 설교가 18세기 계몽주의 유럽에서 얼마나 그 가치를 잃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칼빈의 설교는 왜 출판 되지 않았을까?

칼빈은 설교를 작성할 때 제네바라는 지역적 배경 안에서 성도들에게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길 의도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설교가 제네바라는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만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설교를 출판하길 원치 않았다. 단, 니고데모주의 (Nicodemism)에 대항기 위해 몇 권만 출간 했을 뿐이다 (마치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개신교 신앙으로 돌아섰으나 쉽사리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 예배에 참석했던 이들을 니고데모주의자들과 불렀다). 칼빈은 니고데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들을 하자, 그들에게 답변이 될 만한 설교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출판된 설교집이 바로 고린도전서 1-9장, 시편 119편, 시편 115편, 124편 등이다.

칼빈의 설교와 중세의 설교

칼빈의 설교가 중세의 설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칼빈은 문맥적으로 설교하길 원했다. 그는 본문 하나를 읽어 주고 설교자의 사변으로만 일삼는 설교를 원치 않았다. 이것이 중세와 칼빈의 가장 큰 변화이다. 둘째, 칼빈은 성경 본문에 충실하였다. 칼빈이 설교하던 시대에는 문맹이 많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설교자들이 중간에 사적인 견해를 넣거나 어떠한 이야기들을 추가하여도, 무엇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이며 무엇이 설교자의 견해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기에, 칼빈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고자 하였다.

* 이 글은 2009년 6월 1일 고신대학교 일반 대학원 및 개혁주의 학술원 주최로 열린 본 강연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